

“기후정의를 외치고 행하는 기후증인이 되게 하소서”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1시 ■장 소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주 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 최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인도 : 김현아 사무국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집행위원)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역대상 16:25~26)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 중 : 하나님, 참회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기후 재난과 기후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이에게 회복과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 하소서. 이제 우리가 기후 정의를 외치고 행하는 기후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 “우리 오늘 눈물로”

【기도】 최주리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말씀】 열왕기하 24장 2~4절

- 2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 4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설교】 “돌이킬 수 없는”

윤진영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위원)

【합심 기도】 레위기 26장으로 드리는 공동기도문 (새번역, 부분 발췌)

인도 : 윤동혁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도자 :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15-16)

회 중 :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삶을 잃은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재앙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돌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영구동토가 녹으면 오래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부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자 :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18-20)

회 중 :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폭설로 농작물과 강과 바다의 생물이 스러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오늘의 배부름이라는 욕망 때문에 내일의 굶주림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용서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자 :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24-25)

회 중 : 이상 기후로 인한 식량과 식수 부족, 땅과 바다의 폐허화는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기후 난민이 되었고, 그 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이기적 발전은 약소국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과 나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자 :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33-35)

회 중 : 지구의 안식년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발전에서 눈을 돌리고, 배부름과 풍족함을 내려놓고, 소비로 인한 만족을 포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난하게, 조금 더 불편하게, 예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 세계의 생명이 잘 쉬고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다같이 :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축도】 윤진영 목사 (기윤실 청년위원)

우리 오늘 눈물로
(원제 : 우리 함께 보리라)

고영원

우 리 오늘 눈 물로 - 한 알의 씨앗을 심 - 는 다
 꿈 꿀 수 없 어 무 너 긴 가 승 에 저 들 외 포 르 곱 - 다시 들 어 나 도 록 -
 우 리 함 께 땅 흥 려 - 소 망 의 길 을 만 - 든 다
 내 일 로 가 는 길 을 찾 지 못 했 던 저 들 노 래 하 며 달 려 갈 그 길
 그 날 에 - - 우리 보 리 라 - 새 역 이 승 같 은 저 들 일 어 나
 뜨 거 운 - - 가 승 사 랑 의 완 으 로 - 이 땅 치 유 하 며 - 행 건 할 때
 오 래 화 례 하 이 었 던 - 이 땅 어 디 서 나 순 결 한 꽃 들 피 어 나 고 -
 푸 른 의 의 나 무 가 - 가 득 한 세 상 우 리 함 께 보 리 라

Copyright © 2017 고영원. Used by Permission.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남은

설경옥 *예배자*

아 무 도 예 배 하 지 않 - 는 - 그 곳 에 서 - 주 를 예 배 하 리 라 - 아 무
 도 헌 신 하 지 않 - 는 - 그 곳 에 서 - 주 께 헌 신 하 리 라 - 누 구
 도 찬 양 하 지 않 - 는 - 그 곳 에 서 - 나 주 를 찬 양 하 리 라 - 누 구
 도 증 거 하 지 않 - 는 - 그 곳 에 서 - 나 주 를 증 거 하 리 라
 - 내가 밧는 모든 땅 - 주 를 예 배 하 게 하 소 서 - 주 의
 보 험 로 - 덜 어 거 게 하 소 서 - 내가 선 이 곳 - 주 의 거룩 한 곳
 되 게 하 소 서 - 주 의 향 기 로 - 물 들 이 소 서 -